

營氣의 생성에 대한 고찰

송지청^{1,2} · 금경수^{1,2,4} · 정현종³ · 엄동명^{1,4,*}

1: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원전학교실, 2: 한의학전문대학원, 3: 한의과대학 진단학교실, 4: 한국전통의학연구소

Review on Formation of Nutrient Qi

Ji Chung Song^{1,2}, Kyung Soo Keum^{1,2,4}, Hyun Jong Jung³, Dong Myung Eom^{1,4,*}

1: Department of Classics,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2: Professional Graduate School of Oriental Medicine, 3: Department of Diagnostics,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4: Research Center of Traditional Korean Medicine, Wonkwang University

Formation of nutrient qi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functions in the human body. In medical classic such as 『Hwangdineijing』, it is described through several chapters. However, it is just focused on the first formation of the nutrient qi from water and food by digestion. I will mention how to get nutrient qi in human body and how to circulate and act in physiological phenomena through 『Hwangdineijing』. Human body should get nutrient qi from essence not only from water and food. Human body, because it is a live, must have had a nutrient material before he or she gets water and food by formation of nutrient qi. So he or she can have physiological functions.

Key words : nutrient qi[營氣], defence qi, formation, essence, circulation

서론

『黃帝內經』에서는 여러 편에 걸쳐 營衛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營氣는 脈管을 運行하는 精氣로서, 水穀에서 生하며, 脾胃에서 來源하고, 中焦로 出하며, 그 性質이 柔順하고, 血液을 化生하여 全身을 營養하는 作用을 한다. 營氣의 運行은 中焦에서 手太陰肺經으로 上注한 후, 全身 經脈을 通하여 끊임없이 循行함으로써 人體의 上下 內外 各個部分을 營養한다. 衛氣 또한 水穀으로부터 生하고, 脾胃에 來源하며, 上焦로 出하여 脈外를 運行한다. 그 性質이 標悍하여 經脈의 制約을 받지 않으며, 氣의 運行이 迅速하고 滑利하다. 그 運行은 안으로는 藏府에 이르고 밖으로는 肌表膜理에까지 이르지 않는 곳이 없다.

기존에 營衛關聯 研究로 「元氣, 宗氣, 營氣, 衛氣에 대한 考察」¹⁾에서는 元氣, 宗氣와 구별되는 營氣, 衛氣의 概念을 考察하였고, 「營氣와 衛氣의 循環에 關한 文獻의 考察」²⁾에서는 營氣와 衛氣의 特性을 糾明하였으며, 「營衛에 對한 考察」³⁾에서는 營衛의 概念과 循行에 대한 제반 問題를 考察하였고, 「營과 血에 대한 考察」⁴⁾에서는 營, 血, 營血에 대한 概念 差異를 考察하였지만 營氣의 生成에 관해서는 자세하게 考察하지 않고 기존의

研究를 踏襲하고 있다.

營氣가 生成되는 過程은 飲食物이 胃에 들어오면 人體는 腐熟作用을 하여 水穀之氣를 만들고, 水穀之氣는 營氣로 轉換되어 經隧로 들어가 순행한다. 하지만 飲食物이 體內에 들어오기 전이라 하더라도 生命活動을 위해서는 營氣가 體內에 存在해야 할 것인데, 기존의 研究에서는 이와 關連된 考察이 부족하다. 따라서 본 論文에서는 『內經』의 營氣 生成과 關連된 내용을 중심으로 다음 몇 가지 問題점, 즉 水穀을 攝取하기 전에도 體內에 存在하고 있는 營氣는 어디에서 生成되었는지, 水穀을 攝取한 다음 새로 만들어진 營氣와는 어떤 關係에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營氣는 어떻게 循行하고 어떻게 作用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론

1. 水穀의 消化와 穀氣, 營氣의 生成

營氣의 生成過程은 水穀의 攝取로부터 始作된다. 水穀이

- 1) 차윤근, 권경호, 윤종화. 元氣·宗氣·營氣·衛氣에 대한 고찰. 韓醫學研究會論文集 3卷. 1994.
- 2) 하태현, 홍무장, 김완희. 營氣와 衛氣의 循環에 關한 文獻의 考察. 東醫生理學會誌 11(2). 1996.
- 3) 嚴東明, 林贊國. 營衛에 대한 考察.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9卷. 1995.
- 4) 嚴東明, 宋志靑, 琴桐樹. 營과 血에 대한 考察. 大韓東醫生理病理學會誌. 24(4). 2010.
- 5) 본 논문에서 水穀과 穀氣에 대한 개념을 區分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 교신저자 : 엄동명, 익산시 신용동 344-2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 E-mail : haksan@wku.ac.kr, · Tel : 063-850-6941

· 접수 : 2010/09/20 · 수정 : 2010/10/11 · 채택 : 2010/10/13

위에 들어오면 人體는 腐熟作用을 통해 水穀을 泌別하여 穀氣를 만들고 이 穀氣를 脈中으로 보내 營을 만든다. 이와 관련한 『內經』의 說明은 다음과 같다.

· 『靈樞·營衛生會』: 사람은 水穀에서 氣를 받으니 水穀이 위에 들어와 肺에 傳하여 五藏六府가 모두 氣를 받는다. 淸한 것은 營氣이고, 濁한 것은 衛氣이니, 營氣는 脈中에 있고, 衛氣는 脈外에 있다.(人受氣於穀 穀入於胃 以傳與肺 五藏六府 皆以受氣 其淸者爲營 濁者爲衛 營在脈中 衛在脈外)⁶⁾

· 『靈樞·營衛生會』: 中焦도 또한 胃와 나란히 上焦의 뒤에서 나오니 中焦가 氣를 받는 바는 반드시 糟粕을 泌別하고 津液을 薰蒸하여 精微를 化生하여 위로 肺脈에 보내주면 變하여 血이 되어, 이로써 身體를 奉養하니 이보다 貴한 것은 없다. 그러므로 홀로 經隧를 運行하니 營氣라고 한다.(中焦亦並胃中 出上焦之後 此所受氣者 泌糟粕 蒸津液 化其精微 上注于肺脈 乃化而爲血 以奉生身 莫貴于此 故獨得行于經隧 命曰營氣)⁷⁾

이는 人體가 水穀을 攝取한 이후에 營氣가 生成되는 과정을 說明하고 있지만, 人體가 水穀으로부터 새로운 營氣를 生成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에너지인 營氣⁸⁾는 어디에서 生成되었는지에 대해서 답을 주지 못한다. 즉, 인체에는 腐熟이라는 消化過程을 위한 에너지원으로써 營氣가 必要한데, 이 때 필요한 에너지원으로써의 營氣의 存在나 生成에 관한 설명이 『內經』에는 충분하지 않다. 본 논문에서는 消化過程을 통해 生成된 營氣와 에너지원으로 사용된 營氣를 구분하기 위하여 前者는 新生營氣라 하고 후자는 內在營氣라 부르기로 한다.

新生營氣와 內在營氣의 관계를 살피기 위해 먼저 營氣의 循行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 營氣의 循行

營氣의 循行과 관련된 『內經』 원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靈樞·五十營』: 黃帝가 말하기를, 나는 五十營이 무엇인가 알고 싶다. 岐伯이 대답해 말하기를, 天은 28宿를 한 바퀴 돌고, 한 宿의 거리는 36分이므로 人氣가 한 바퀴 周行하면 1008分이 된다. 태양은 28宿를 운행하고, 인체의 經脈은 上下, 左右, 前後 28脈이 전신을 16丈2尺을 주행하여 28宿와 相應하고, 물시계는 100刻이 되어 晝夜로 구분된다. 그러므로 인체를 一呼에 脈이 두 번 박동하고 氣는 3寸을 운행하며 一吸에 脈이 또 두 번 박동하고 氣는 3寸을 운행하므로, 한번 호흡하는 사이에 氣는 6寸을 운행한다. 10息에 氣는 6尺을 운행하고 태양은 2分을 운행한다.

水穀은 식사를 통해 섭취하는 飮食物 그 자체를 意味하고 穀氣는 섭취한 음식물로부터 腐熟作用을 거쳐 만들어진 精微物質을 意味하며, 水穀之氣 또는 水穀之精氣 또한 곡기와 같은 의미이다. 그런데 『內經』 原文에 사용된 '穀氣' 중에는 단순히 음식물을 지칭하는 水穀을 표현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전후 문맥의 의미파악을 통해 區分해서 사용하고자 한다.

6) 洪元植. 精校 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5. p.119.

7) 洪元植. 精校 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5. p.120.

8) '營과 血에 대한 考察(大韓東醫生理病理學會誌. 24(4). 2010)'을 통해 新生營氣를 生成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체내 에너지는 營氣임을 밝혔다.

270息에 氣는 16丈2尺을 운행하고 氣가 經脈 가운데를 상하로 교류하고 내외로 관통하여 전신을 한 바퀴 주행하므로 물시계의 물은 2刻이 내려오고, 태양은 25分을 운행한다. 540息에 氣는 전신을 두 번 주행하므로 물시계의 물은 4刻이 내려오고, 태양은 40分을 주행한다. 2700息에 氣는 전신을 10회 주행하므로, 물시계의 물은 20刻이 내려오고 태양은 5宿20分을 운행한다. 13,500息에 氣는 전신을 50바퀴 주행하므로 물시계의 물은 100刻이 되고 태양은 28宿를 주행하니 물시계의 물이 모두 떨어지고 經脈도 50營을 마친다.(黃帝曰 余聞闕五十營 奈何 岐伯答曰 天周二十八宿 宿三十六分 人氣行一周 千八分 日行二十八宿 人經脈上下左右前後二十八脈 周身十六丈二尺 以應二十八宿 漏水下百刻 以分晝夜 故人一呼 脈再動 氣行三寸 一吸 脈亦再動 氣行三寸 呼吸定息 氣行六寸 十息 氣行六尺 日行二分 二百七十息 氣行十六丈二尺 氣行交通于中 一周于身 下水二刻 日行二十五分 五百四十息 氣行再周于身 下水四刻 日行四十分 二千七百息 氣行十周于身 下水二十刻 日行五宿二十分 一萬三千五百息 氣行五十營于身 水下百刻 日行二十八宿 漏水皆盡 脈終矣)⁹⁾

· 『靈樞·營衛生會』: 사람은 水穀에서 氣를 받으니 水穀이 위에 들어와 肺에 傳하여 五藏六府가 모두 氣를 받는다. 淸한 것은 營氣이고, 濁한 것은 衛氣이니, 營氣는 脈中에 있고, 衛氣는 脈外를 運行하며, 營氣는 全身을 쉬지 않고 五十회를 돌아 다시 會合하고 陰經과 陽經이 서로 通하여 끝이 없는 고리와 같다. 衛氣는 陰經을 二十五回 運行하고 陽經을 二十五回 運行하여 晝夜가 나뉘어지므로 衛氣가 陽經에 이르러서는 사람이 일어나고 陰經에 이르러서는 休息한다. …… 上焦는 胃의 上口에서 나와 咽과 나란히 膈膜을 貫通하여 胸中에 퍼지고 겨드랑이로 走行하여 手太陰 部分을 循行하여 運行하다가 돌아가 陽明經에 이르러서 上行하여 舌에 이르고 下行하여 足陽明에 이른다. 항상 營氣와 함께 陽經을 二十五回 돌고 陰經 또한 二十五回 돌아 一周한다. 그러므로 五十회를 돌아 다시 手太陰에서 會合한다.(人受氣於穀 穀入于胃 以傳與肺 五藏六府皆以受氣 其淸者爲營 濁者爲衛 營在脈中 衛在脈外 營周不休 五十而復大會 陰陽相貫 如環無端 衛氣行于陰二十五度 行于陽二十五度 分爲晝夜 故氣至陽而起 至陰而止 …… 上焦出于胃上口 竝咽以上 貫膈而布胸中 走腋 循太陰之分而行 還至陽明 上至舌 下足陽明 常與營俱行于陽二十五度 行于陰亦二十五度一周也 故五十度而復大會于手太陰矣)¹⁰⁾

이로 볼 때 人體가 水穀을 腐熟하여 生成한 穀氣는 新生營氣로 전환되어 肺로 上輸되고, 呼吸을 따라 經隧를 行하게 되는데, 주간에 二十五回, 야간에 二十五회를 循行하여 하루에 身體를 五十回 循行한다. 新生營氣는 經隧를 따라 全身을 循行하면서 人體가 生命活動을 行할 수 있도록 에너지원으로써 使用된다. 이때 新生營氣의 총 生成量이 人體의 生命活動에 使用될 정도에만 충족할 量이라면 人體는 매시간 水穀을 攝取해야 하므로 新生營氣의 총 生成量은 그 이상이어야 한다. 따라서 新生營氣는 經隧를 돌면서 일부는 에너지로써 使用되고, 나머지는 經隧를 循行하

9) 洪元植. 精校 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5. p.111.

10) 洪元植. 精校 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5. p.120.

게 된다.

그런데 營氣가 經隧를 循行하기는 하지만 항상 經隧內에서 存在하는 것은 아니다. 『內經』에서

· 『靈樞·營衛生會』: 사람은 水穀에서 氣를 받으니 水穀이 胃에 들어와 肺에 傳하여 五藏六府가 모두 氣를 받는다.(人受氣于穀 穀入于胃 以傳與肺 五藏六府 皆以受氣)¹¹⁾

라 하였는데, 이는 新生營氣가 生成되어 經隧로 들어간 후, 五藏六府¹²⁾가 이 營氣를 받아들인다는 意味이다. 따라서 經隧內의 營氣는 어떤 형식으로도 五藏으로 이동하게 된다.

그런데 『內經』에서 營氣와 五藏의 關係를 언급한 內容은 찾을 수 없다. 營氣의 運行과 五藏의 關係는 오히려 衛氣의 循行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 衛氣의 運行 가운데 五藏과 관련된 內容을 서술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營氣가 五藏으로 移動過程을 살피기 위해서는 衛氣의 循行을 살펴보아야 한다.

3. 衛氣의 循行

衛氣의 循行과 관련된 『內經』 원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靈樞·衛氣行』: 衛氣의 運行이 一日一夜에 몸을 五十回를 두루하되 낮에는 陽分을 二十五回 運行하고 밤에는 陰分을 二十五回 주행하여 五藏을 주행한다.(衛氣之行 一日一夜五十周於身 晝日行於陽二十五周 夜行於陰二十五周 周於五藏)¹³⁾

라 하였는데, 이는 衛氣 또한 營氣와 같이 晝夜로 五十回를 循行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營氣는 衛氣와 무관하게 循行하는 것이 아니라 衛氣와 함께 循行¹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內經』에서

· 『靈樞·營衛生會』: 衛氣는 陰經을 二十五回 運行하고 陽經을 二十五回 運行하여 晝夜가 나뉘어지므로, 衛氣가 陽經에 이르렀을 때는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나고 陰經에 이르렀을 때는 休息한다.(衛氣行于陰二十五度 行于陽二十五度 分爲晝夜 故氣至陽而起 至陰而止)¹⁵⁾

· 『靈樞·邪客』: 衛氣는 그 悍氣의 標疾함을 내어 먼저 四末과 分肉과 皮膚의 사이를 走行하여 쉬지 않는다. 낮에는 陽分을 運行하고 밤에는 陰分을 運行하는데, 항상 足少陰의 分間으로부터 五藏六府로 走行한다.(衛氣者 出其悍氣之標疾 而先行於四末分肉皮膚之間 而不休也 晝日行於陽 夜行於陰 常從足少陰之分間 行於五藏六府)¹⁶⁾

라 한 內容을 보면, 衛氣는 夜間에 陰分을 二十五周 行하고, 주간에 陽分을 二十五周 行하는데, 『靈樞·邪客』에서 ‘밤에는 陰分을 運行하는데, …… 五藏六府로 走行한다.’고 한 內容에 근거하면 陰分은 곧 五藏六府¹⁷⁾를 意味한다.

아울러 『內經』에는 위에서 언급한 內容과 다른 內容의 衛氣 循行을 설명하는 부분¹⁸⁾도 있다.

· 『靈樞·衛氣行』: 衛氣가 몸에 있어서 …… 水下一刻에 人氣는 太陽에 있고 水下二刻에 人氣는 少陽에 있고 水下三刻에 人氣는 陽明에 있고 水下四刻에 人氣는 陰分에 있으며, 水下五刻에 人氣는 太陽에 있고 水下六刻에 人氣는 少陽에 있고 水下七刻에 人氣는 陽明에 있고 水下八刻에 人氣는 陰分에 있으며, 水下九刻에 人氣는 太陽에 있고 水下十刻에 人氣는 少陽에 있고 水下十一刻에 人氣는 陽明에 있고 水下十二刻에 人氣는 陰分에 있으며, 水下十三刻에 人氣는 太陽에 있고 水下十四刻에 人氣는 少陽에 있고 水下十五刻에 人氣는 陽明에 있고 水下十六刻에 人氣는 陰分에 있으며, 水下十七刻에 人氣는 太陽에 있고 水下十八刻에 人氣는 少陽에 있고 水下十九刻에 人氣는 陽明에 있고 水下二十刻에 人氣는 陰分에 있으며, 水下二十一刻에 人氣는 太陽에 있고 水下二十二刻에 人氣는 少陽에 있고 水下二十三刻에 人氣는 陽明에 있고 水下二十四刻에 人氣는 陰分에 있으며, 水下二十五刻에 人氣는 太陽에 있으니 이것이 半日의 度數이다.(衛氣之在於身也 …… 水下一刻 人氣在太陽 水下二刻 人氣在少陽 水下三刻 人氣在陽明 水下四刻 人氣在陰分 水下五刻 人氣在太陽 水下六刻 人氣在少陽 水下七刻 人氣在陽明 水下八刻 人氣在陰分 水下九刻 人氣在太陽 水下十刻 人氣在少陽 水下十一刻 人氣在陽明 水下十二刻 人氣在陰分 水下十三刻 人氣在太陽 水下十四刻 人氣在少陽 水下十五刻 人氣在陽明 水下十六刻 人氣在陰分 水下十七刻 人氣在太陽 水下十八刻 人氣在少陽 水下十九刻 人氣在陽明 水下二十刻 人氣在陰分 水下二十一刻 人氣在太陽 水下二十二刻 人氣在少陽 水下二十三刻 人氣在陽明 水下二十四刻 人氣在陰分 水下二十五刻 人氣在太陽 此半日之度也)¹⁹⁾

이는 衛氣 循行이 睡眠과는 관계가 없으며, 每 1刻에는 太陽, 少陽, 陽明의 陽(分)을 行하고, 그 다음 1刻內에 陰分을 빠르게 行한다는 것이다.

『靈樞·營衛生會』와 『靈樞·邪客』에서 서술한 衛氣는 睡眠을 기점으로 陽分과 陰分을 각각 25周씩 行하지만, 『靈樞·衛氣行』에서 서술한 衛氣는 睡眠과는 관계없이 三陽인 陽分과 陰分을 循行하는 것이다. 비록 兩者간에 循行의 度數에 차이가 있으나, 이는 營氣와 마찬가지로 衛氣도 그 總量이 睡眠을 기점으로 循行하는 過程 아니면 4刻마다 陽分과 陰分으로 循行하는 過程 중 한 가지만 택하여 行하는 것이 아니며, 衛氣의 일부는

11) 洪元植. 精校 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5. p.120.
 12) 五藏六府라 하였지만 실제로는 五藏만을 말한다. 六府에서는 營氣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胃에서 나온 濁者 중에서 精微物質을 吸收하기 때문에, 經隧內의 營氣는 六府로 歸納되거나 貯藏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營衛生會』에서 五藏六府라고 했어도 실제로는 五藏만을 말한다.
 13) 洪元植. 精校 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5. p.324.
 14) 모든 營氣가 다 衛氣와 함께 循行하는 것은 아니다. 經隧內의 營氣가 일부는 에너지원으로 일부는 經隧內에서 계속 循行하는 것처럼 營氣의 일부는 經隧內를 주야 50回 循行할 것이고, 나머지 일부는 衛氣와 더불어 行하는 것이다.
 15) 洪元植. 精校 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5. p.120.
 16) 洪元植. 精校 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5.

p.298.
 17) 五藏六府라 하였지만 특히 五藏을 말한다. 六府는 胃에서 나뉘어진 濁者를 차례로 받아들여 泌別하기 때문에 營氣와 관련이 없다.
 18) 위의 『靈樞·營衛生會』와 아래의 『靈樞·衛氣行』의 內容 외에도 『靈樞·歲露論』에서 ‘衛氣는 매일 風府에서 大會한다.(衛氣一日一夜常大會于風府)’고 하였다. 이처럼 『內經』에는 衛氣의 循行에 관해 3가지로 說明하고 있다.
 19) 洪元植. 精校 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5. pp.324*325.

睡眠을 기점으로 하여 循行하고, 나머지 일부는 衛氣夜間循行의 過程으로 行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後者의 衛氣循行을 주목해야 한다. 衛氣가 經隧를 벗어나 陰分 즉 五藏으로 들어가는 過程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衛氣循行中 睡眠을 기점으로 陽分과 陰分을 循行하는 경우는 睡眠時에 衛氣가 五藏內에 들어가 休止期를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衛氣가 晝間에 陰分을 循行하기는 하지만 晝間은 人體가 旺盛하게 활동하는 時間이므로 前者와 같이 休止期를 가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결국 衛氣가 晝間에 陰分을 循行한다는 것은 곧 衛氣가 陰分으로 들어가 五藏과 關係된 어떤 일련의 過程을 거친다는 것을 意味한다.

『內經』에서

· 『靈樞·營衛生會』: 사람은 水穀에서 氣를 받으니 水穀이 胃에 들어와 肺에 傳하여 五藏六府가 모두 氣를 받는다.(人受氣于穀 穀入于胃 以傳與肺 五藏六府皆以受氣)²⁰⁾

라 하였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新生營氣가 生成되어 經隧로 들어간 후 衛氣의 陰分循行 過程과 더불어 五藏으로 들어가는 것을 意味한다.

이를 圖解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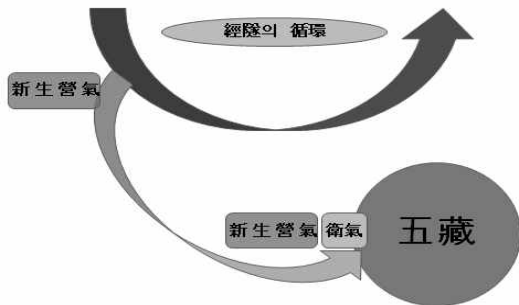


Fig. 1. Movement of New-made Nutrient Qi and Defence Qi to Five Viscera.

4. 新生營氣의 精 變換

앞서 新生營氣의 生成과 循行을 살펴보면 衛氣의 循行에 주목했던 理由는 陰分으로 들어가는 衛氣를 따라 新生營氣 또한 함께 들어가 五藏에 作用하기 때문이다. 그 다음은 營氣가 衛氣를 따라 五藏으로 들어가면 營氣는 어떠한 形態로 存在하는가에 대해 살펴보아야 한다.

『內經』에서는

· 『靈樞·營衛生會』: 營衛는 精氣이다.(營衛者 精氣也)²¹⁾ 고 하였는데, 이는 營氣와 衛氣가 精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經隧內의 營氣와 衛氣가 어떤 過程을 거쳐 精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지에 대한 명확한 說明이 없다. 그동안 營氣와 衛氣의 循行을 통해 營氣가 五藏으로 들어가는 過程을 파악하였고, 五藏은 精을 貯藏하는 곳이기 때문에, 五藏에 들어

간 新生營氣는 결국 精의 形態로 變換되어 貯藏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新生營氣가 五藏에서 精으로 바뀌면서 消耗되는 過程인 동시에 精이 五藏에서 生成되는 過程이다.

5. 精의 內在營氣 變換

新生營氣에서 精이 生成되는 過程을 살펴보았는데, 그 반대로 精이 衛氣를 따라 陽分으로 나가면서 內在營氣로 轉換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내용을 살펴보자.

· 『靈樞·衛氣』: 五藏은 精神魂魄을 藏하는 것이고, 六府는 水穀을 받아 消化되도록 하는 것이다. 그 氣는 안으로 五藏에 干與되고 밖으로 肢節에 連絡된다. 浮氣로서 經脈을 循行하지 않는 것은 衛氣가 되고 精氣로서 經脈을 운행하는 것은 營氣가 된다. (五藏者 所以藏精神魂魄者也 六府者 所以受水穀而化行物者也 其氣內于五藏 而外絡肢節 其浮氣之不循經者 爲衛氣 其精氣之行于經者 爲營氣)²²⁾

이는 精이 經隧로 行하는 것이 營氣가 된다고 하여 精이 內在營氣가 되는 過程을 說明한 것이다.

新生營氣는 衛氣가 陽分에서 陰分으로 들어갈 때 陰分으로 들어간 후, 新生營氣가 精으로 變換되어 五藏에 貯藏되며, 精이 內在營氣로 變換될 때에는 이 過程의 逆을 통해 이루어진다. 즉, 五藏의 精은 衛氣가 五藏의 陰分에서 陽分으로 出할 때 衛氣를 따라 經隧로 들어가 營氣가 되는 것이다. 이는 精이 五藏에서 內在營氣로 바뀌면서 消耗되는 過程인 동시에 內在營氣가 五藏에서 生成되는 過程이다.

이를 圖解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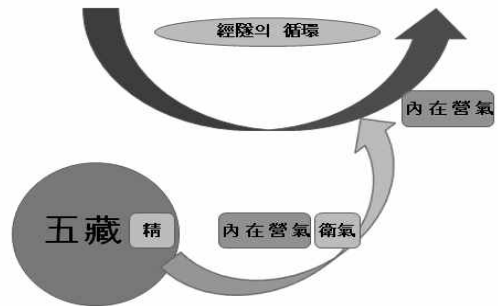


Fig. 2. Movement of Existed Nutrient Qi and Essence to Meridians.

결론

營氣는 人體 生命現狀을 維持케하는 營養物質이다. 따라서 人體가 生命現狀을 維持하는 한 營氣는 잠시라도 缺 없이 공급되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內經』 설명처럼 營은 오로지 水穀에서만 生成되고, 人體는 生命活動을 위해 바로 이 營을 使用한다고 가정한다면 매시간 活動하고 있는 生命體는 生命活動의 連續性을 가질 수 없다. 이에 『內經』의 原文을 통해 人體가 生命現象을 維持하기 위해 필요한 營氣의 生成에 관하여 考察하였

20) 洪元植. 精校 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5. p.119.

21) 洪元植. 精校 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5. p.120.

22) 洪元植. 精校 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5. p.236.

으며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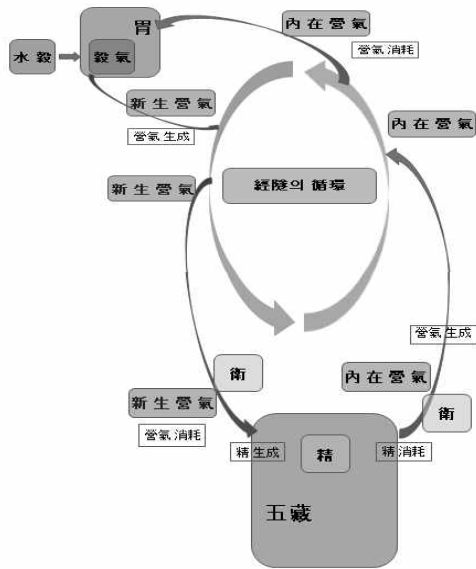


Fig. 3. Formations and Consumptions of Nutrient Qi and Essence.

營氣는 水穀이 體內로 들어오지 않은 狀態에서도 그 기능을 발휘해야 하기 때문에 水穀의 攝取與否와 상관없이 人體生命活動 維持하기 위해 체내에 항상 존재하여야 한다.

營氣는 水穀의 腐熟過程을 통해 生成되는 新生營氣와 精의 變換過程을 통해 生成되는 內在營氣로 나누어 파악할 수 있다.

新生營氣의 일부는 사람이 生命活動을 維持하기위해 使用되며 나머지는 經隧를 循行한다.

經隧를 循行하던 新生營氣는 晝間에 陰分으로 들어가는 衛氣를 따라 들어가 五藏을 循行한다.

五藏으로 들어간 新生營氣는 五藏의 精으로 轉換된다. 이는 新生營氣가 五藏에서 消耗되는 過程인 동시에 精이 五藏에서 生成되는 過程이다.

五藏의 精은 晝間에 陽分으로 나오는 衛氣를 따라 나와 五藏의 精 또한 經隧를 循行한다.

經隧를 循行하기 시작한 五藏의 精은 內在營氣로 轉換된다. 이는 精이 五藏에서 消耗되는 過程인 동시에 內在營氣가 五藏에서 生成되는 過程이다.

이를 圖解하면 Fig. 3과 같다.

감사의 글

본 논문은 2009년 원광대학교 교내연구비지원에 의해 수행된 것임.

참고문헌

1. 차윤근, 전경호, 윤중화. 元氣·宗氣·營氣·衛氣에 대한 고찰. 韓醫學研究所論文集 3卷. 1994.
2. 하태현, 홍무창, 김완희. 營氣와 衛氣의 循環에 關한 文獻의 考察. 東醫生理學會誌 11(2), 1996.
3. 嚴東明, 朴贊國. 營衛에 대한 考察.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9卷. 1995.
4. 洪元植. 精校 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5.
5. 洪元植. 精校 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5.
6. 嚴東明, 宋志靑, 琴炯樹. 營과 血에 대한 考察. 大韓東醫生理病理學會誌 24(4), 2010.